

고객 감동의 시대를 창조하는 “건설디벨로퍼 화성”

화성산업은 58년 대구에서 '쾌적한 환경창조,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통해 보다 나은 인간의 삶, 고객과 사회를 위한 가치창조를 기업이념으로 설립되었다.

대구지역의 굴지의 1위 건설업체로서 주택, 건축, 토목, 환경, 플랜트 그리고 엔지니어링 컨설팅 분야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력과 노하우로 대구·경북권 최고의 건설사로 인정받고 있는 화성산업.

74년 대통령표창, 96년 금탑산업훈장, 97년 품질상위업체 선정, 99년 철곡3차 화성타운 대구시 시공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 했으며 건설공제조합 기업신용평가 AAA등급을 획득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크게 성장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월드컵 경기장 건설의 높은 시공실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성산업을 찾아가 보았다.

〈취재 | 박병기 기자〉



애널리스트들이 인정한 화성산업

주택건설업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화성산업이 마침내 지역을 평정하고 전국구 맹주로서의 등극을 위해 야심찬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화성산업의 경이적인 역량과 독보적인 성장잠재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지역에서 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더욱 세차게 집중되고 있다.

화성산업은 올초부터 중앙증권사들의 주목대상 1호로 부상했다.

1월 교보증권에 이어 3월 하나경제 연구소측이 화성산업이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턴어라운드 기업이고, 주가가 다른 지방 백화점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는 주목할만한 의견을 내 관심을 모은바 있다.

하나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화성산업은 올해 유통부문 안정성장세와 건설부문 실적호전에 힘입어 매출액과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각각 12%, 237% 증가한 3,336억원과 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통부문은 매장 재단장과 부실점포

철수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매출액이 9.7% 늘어나고 건설부문도 신규수주 증가로 18.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LG텔레콤 주식 175만주, 브랜딩빵화점(350억) 등을 매각시 500억~600억원의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동안 전환사채 불량 부담 때문에 지방 백화점 랠리에서 소외돼 주가수익비율이 4.1배에 불과하다고 전하면서 대박 신화를 예고했다.

이처럼 장세와 주가 분석에 관한한 냉철하기 그 지없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하나같이 화성산업을 유망종목 1순위로 꼽고 있는 것은 획기적인 건축기술공법과 마케팅 전략 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한동안 타의 추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화성산업은 지난 2000년 A등급, 지난해 AA등급에 이어 올들어 건설공제조합이 실시한 2002년 신용평가에서 AAA등급을 받게 됐는데 이는 전국의 많은 건설업체중에 1%에게만 주어지는 값진 결과이다.

기술이 경쟁력이다

화성산업은 체육시설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화성산업은 월드컵 경기가 열린 전국 10개 경기장 가운데 대구를 비롯 울산, 인천, 제주 등 4개 경기장 건물공사에 직접 참가했다. 또한 시·군지역 체육관과 대학 체육관을 잇따라 수주하는 등 최근들어 체육시설 수주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내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농구경기장으로 지정된 경주 서라벌대 체육관은 지난 7월 준공했으며, 영남이공대학 체육관, 안동체육관, 평양 아산종합체육관 등을 건립했고 대구동구문화체육회관, 대구학생문화센터 체



육시설공사를 현재 진행중이다.

또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조경공사를 맡아 월드컵 공원을 조성했다. 이처럼 체육시설 공사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화성산업이 그동안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보고 개발에 박차를 가해온 PC공법(조립식공법)과 철구조물사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은 이 PC공법을 4개 월드컵 경기장에 시공했으며 고양종합경기장 PC공사 등을 수주했다.

평양에 건립한 아산종합체육관 건립공사에도 화성의 PC기술자들이 기술지도를 하는 등 기술력에서 인정받고 있다. 화성산업은 선진 공법인 PPC(압착 고강도 PC공법)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의 컬러 PC 특허 획득으로 PC특수 분야의 선두자리를 지켜가고 있다. 또한 의성 PC공장 단독으로 ISO 9001을 받는 등 설계, 제작, 시공, 사후관리의 일관된 서비스 체제를 갖췄다. 이같은 기반과 기술을 바탕으로 화성산업은 올 4월 대구시를 방문한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투자유치단에 지역건설업계를 대표해 첨단공법을 선보이기도 했다. 화성산업은 상트 페테르부르크 투자유치단의 방문을 받고, 주간사로 시공책임을 맡아 준공한 대구전시컨벤



대구월드컵경기장

션센터를 둘러보게 하고, 동서변리버파크 모델하우스의 공사현장 등을 소개 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과 평양 아산 종합체육관 건립공사에 기술지도를 해 국내 업계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PC공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러시아측 투자유치단과 동행한 건축전문가들은 자국내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문제와 대규모 택지개발, 추운 날씨로 인한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 각종 건설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함께 화성산업의 PC 기술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

58년 토목사업 중심으로 출발 주택, 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한 화성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몸에 좋은 약은 쓴것처럼 내부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 끝에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2000년 하반기부터는 관급공사와 민



대구전시컨벤션센터

간공사 수주가 급속히 늘고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2003년 여름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건립공사를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해 수주한데 이어, 총사업비 8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황금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롯데건설과 컨소시엄으로 따내는 등 본격적인 도약의 기치를 올리기 시작했다. 또 광주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한 광주 남평 우회도로 축소 및 포장공사 입찰에 주간사로 참여해 총공사비 766억원에 수주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화성산업은 이같은 실적에 힘입어 외환위기 이후 중단했던 신규아파트 분양사업을 재개, 군인공제회가 발주한 700억대 규모의 화성리버파크 공사를 따냈으며 82%라는 놀라운 초기계약을 기록 했다. 또 화성 고려 파크뷰, 송오 화성파크 분양에 잇따라 성공했다.

그리고 올들어 외환위기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자체 아파트 분양사업에 들어가 4월중순 대구시 북구 칠곡택지 개발 3지구에 센트럴파크 1,440가구와 그랜드파크 716가구 2개단지 2,156가구를 선보였으며 최고 경쟁률 23대 1을 기록하는 등 선풍적인 인



침산2차 화성타운



화성수성하이츠아파트

기몰이를 했다.

윤리경영으로 한걸음 더

최근 증가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도덕성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요구 및 감시 증대와 OECD의 반부패라운드 등 국내의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기업이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

이런 시대적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고객, 주주, 협력업체 등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윤리경영을 시행하는 화성산업.

‘쾌적한 환경창조,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통해 보다 나은 인간의 삶, 고객과 사회를 위한 가치창조를 기업이념을 중심으로 화성산업의 모든 임직원은 전국굴지의 건설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하나되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변화할 화성산업의 미래가 밝게 보인다. 